

제 203회 일본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 일본의 지역만들기와 평생학습

강사 : 이정연(李正蓮, 도쿄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준교수)

시간 : 2016. 11. 22. 화. 12:00 - 13:30

2016년 11월 22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2동) 202호에서 제203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0여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일본의 지역만들기와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도쿄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수인 이정연 발표자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로서 한국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노동인력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한발 앞서 경험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만들기 실천들에 주목하였다.

발표자는 일본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대도시(수도권)로의 극심한 집중, 글로벌화가 초래한 사회구조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단절, 고립, 고독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도시로의 극심한 집중의 문제는 노인과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살기 힘들니까 도시로 나오게 되고, 시골은 완전히 비게 되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중심으로 몰리는데 이것을 극점사회라고 한다.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이 엄청난 타격이다. 여성들이 도시로 나가도 생계유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어 인구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화가 초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정규직 감소이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빈곤한 아이들은 대부분 싱글맘과 같이 편부모의 아이들이다. 일본에서 여성평등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성의 소득은 굉장히 낮다. 사회관계망의 단절과 희박화는 자치회, 정례회 같은 것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발생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시청촌(市町村) 대합병으로 작은 마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불신과 불안감 증대, 고독, 고립화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복지국가 종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을 길러야 한다.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지역만들기'이다. 이것은 학교와 행정이 연대를 해서 이끌어야 한다. 전후(戰後) 일본은 공민관(公民館)을 거점으로 나라를 재건하는데 노력했다. 현재 일본은 이 공민관을 다시 활용하여 지역을 살리려고 한다. 단, 공민관

만으로는 안 되고 NPO, 가정, 학교, 대학, 기업, 행정, 자치회 등이 연대해야 한다.

정리하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 복지, 생계 등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어느 한 주체가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지자체, 지역주민, 각종 단체들, 기업이 잘 연대를 해야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서로 잘 알아야 한다. 서로 교류하고 만나서 공유하고 협력해야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규범, 네트워크이다. 이것을 만들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민관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전전(戰前)처럼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질의 응답>

질문 : 일본은 원래 봉건제 사회였고, 지역의 자치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별도로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계속 중앙집권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치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 : 한국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합니다. 요즘 '행복학습센터'가 읍면동 단위로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공민관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취미교양위주로 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문화와 함께 복지와 생활문제까지 관련해서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은 리더교육을 중시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리더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이 자립해야 합니다.

질문 : 저는 오키나와를 조사해봤는데, 오키나와는 행정 사무소와 공민관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계로는 다르지만, 합치가 되어있고 누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 : 오키나와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가면 다케토미 섬(竹富島)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키나와는 마을 안에 다 있습니다. 공민관뿐만 아니라 보육관, 공동매점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매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 도시로 가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공민관과 다릅니까?

답 : 커뮤니티 센터와 공민관은 다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마을회관처럼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집회소같이 사용하는 곳이고, 공민관은 거기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 한국도 커뮤니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답 :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일본의 공민관 같은 것입니다.

질문 : 공민관이 전전(戰前)에도 있었습니까?

답 : 아닙니다. 공민관은 전후(戰後)에 국가재건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법제화가 되어있어서, 시정촌(市町村)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전문 직원도 두어야 합니다. 한국은 평생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지만 다 계약직입니다.

질문 : 오히려 한국은 현재 청년실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지역 내의 공민관 같은 곳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이러한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생교육사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제가 최근에 개호보험(介護保險)법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개호보험에 대해 재정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 사회적 자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쉽게 말하면 개호보험자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일본정부에서 2015년쯤에 법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후생노동청에서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평생교육사 같은 것을 누가 만들어서 위에서 보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위에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격증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답 : 일단 일본의 사회교육 전문 직원들의 기본정신은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질문 : 지금 혼동되는 것이 일본에는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공민관이 있잖아요. 한국도 지방에 있는 커뮤니티 행정조직이 있고, 행복학습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답 : 일본의 공민관 같은 한국의 체계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평생교육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고, 각 도별로 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밑에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가 생겼습니다. 이 행복학습센터를 점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일본은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소개하셨는데,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행정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답 : 있습니다. 구의 공민관 직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합니다. 주민참여를 중요

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시스템은 다 있는데, 전후에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잘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도 전체적으로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가장 큰 문제는 노인중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방창생이 되려면 젊은 여성, 젊은 남자가 중심이 되어야 지방창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중심의 복지로 쏠리고 있는데, 국가적 노력은 없습니까?

답 :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이 '왜 다 노인인가? 젊은이들은 얼마나 참가하는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 젊은 층이 하려면 아무래도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 전후 공민관에는 산업기능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학습센터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도 농촌에 사람이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시키려고 젊은이들이 농업으로 창업을 하면 국가에서 1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답 : 도요타시(豊田市)가 합병을 하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도요타시 주변에 여러 촌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역격차가 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도요타시가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외지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매달 돈을 주면서 농촌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돈을 받고 빈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중에 몇 명이 남아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워낙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지자체 별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아까 인구감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것이라는 입장은 없습니까? 소극과민이라는 이상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을수록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노자의 이상사회론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실업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가 적으면 GNP도 적어도 됩니다.

답 : 선생님 말씀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인구가 적지 않았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미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근대 산업사업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량생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 시스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 평생학습의 콘텐츠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답 :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콘텐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일본은 특별히 콘텐츠에 구애되지 않고, 일단은 모여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개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우선 모여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 마을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연대하고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답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 한국에서는 조그만 곳은 버리고 대도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농촌지대에는 있을 사람만 있고 각 현의 중심 도시에 모이는 것입니다.

답 :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 지역격차 등 불균형 문제 생깁니다.

질문 : 일본은 시골에서 평생학습 개념을 가졌지만 한국은 집중화되었을 때, 예를 들어 대구에서 보면 경북대학이 어떻게 평생학습기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입학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에 퇴직을 하고 세컨드 칼리지처럼 술을 만드는 것을 배우거나 인형을 만드는 것을 배우거나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답 : 일본도 **Center of Community(COC)**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이 그것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 : 그럼, COC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대학이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 대학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뭔가 하려는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명확하게 프로젝트같은 것이 있어서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고생합니다. 특히 교토가 폐쇄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은 분위기 좋은 지역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진짜 소멸되는 지역은 하기 어렵습니다.

답 : 도요타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백병을 사가지고 매일 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요타시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젊은이들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해서 뽑은 것입니다. 물론 적응 못한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리 잡은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